

한국불교문헌 영역화 외국학자 의존도 높다

번역물 검증체계 필요... 해외시장 개척도

불교문화연구원, 국제원효학회 등 주요 불교학술단체들이 한국불교 고전·연구서의 영역·일역 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번역물의 엄정한 검증 △번역물 소개하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국내에서 발간된 영자판 한국불교 서적에는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중·이하 불문연)이 최근 출간한 <한국불교사상개관>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이며 <한국 선사상 연구> <천태사상연구> 등의 발간도 서두르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원효학회(회장 송석규)는 번역자 15명을 선정하고 원효저술 번역 작업에 들어 갔다. 또 성철선사상연구원

(원장 목정배)도 성철스님의 법어 집인 <가야산의 메아리>의 영역본 개정·보완판의 발간을 서두르고 있으며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은 UCLA 부설 종교학연구소와 함께 보조지불스님의 전적과 강원교재인 <사집> 등의 영역본 발간을 계획하고 있어, 한국불교 고전·연구서의 '번역붐'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성배 석좌교수(동국대 불교학)는 "한국불교의 뛰어난 사상에 불구하고 국내 학자들이 진부한 영어 표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해외 불교학자 의존도가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불교의 정수를 올바르게 번역하기 위해서

는 성과물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외국인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이 작업에서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국제원효학회가 원효스님 저술을 번역하기 위해 선정한 번역자 15명 중 12명이 해외 학자인 반면 국제원효학회는 이들 번역들이 한국불교의 전통을 잃고 있는가를 엄격히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연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효스님 저술 영역작업이 자칫하면 해외 학자들의 개인 성과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부 학자들의 우려이다.

한편 우수한 번역물이 쏟아져



◇<한국불교사상개관> <도선국사> <한국에서 온 부처> 등 영자판 한국불교 관련서적.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소개할 수 있는 해외 시장이 개척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해외에 소개된 한국불교 서적들은 대부분 미국 파라랙스(Parallax)·삼발라(Shambala) 출판사와 하와이·뉴욕 주립·UCLA 등의 대학에서 주로 발간하고 있지만, 소량일 뿐만 아니라 국내 학계와 출판계가 제외된 상태에서 대부분 외국인 학자들에 의해 연구·발간되어 왔다.

송선스님이 세운 관음선원의 프 라이머리 포인트(Primary Point) 출

판사가 미국에서 한국불교 관련 서적을 발간하고 있지만 국내 학계·출판계와의 연계가 부족하다. 불문연이 펴낸 '한국불교사상총서' 보급을 도맡은 배만영씨(불교학술연구소 대표)는 "영자판 <한국 불교사상개관> 등은 미주·유럽 등 해외 연구소에 기증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한(駐韓) 외국인 학자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실정"이라며 "출판계가 해외 시장 개척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종욱 기자

부디피아 사이버 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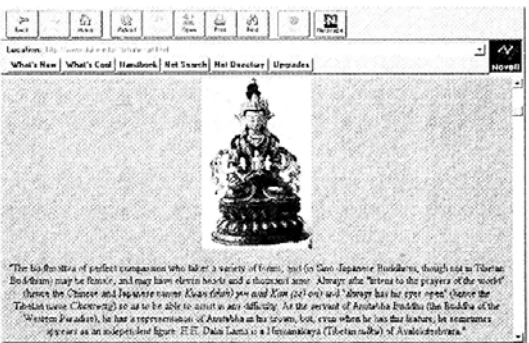
부디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예술-티벳

불자들이 티벳불교에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티벳불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부재와 막연한 동경의 결과가 아닐까.

미국 듀크(Duke) 대학의 심리학자 로저박사가 개설한 '불교미술-티벳'에는 △티벳불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티벳불교의 본존 △유희회도 △삼만다라 등을 그래픽으로 제공되고 있다. '티벳불교의 본존'에는 관자재보살(Avalokitesvara) 상을 비롯해 비 밀집회·시론·호금장 본존 등 보신(受身)과 응신(應身)의 본존상을 감상할 수 있다. 로저박사는 "이 티벳 본존들이 불교의 가르침인 대자비와 보리심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티벳의 전통적인 '유희회도'는 증생이 윤회세계에서 생사를 반복하는 인과관계를 심이연기에 의해 분석적으로 설명한 그림. 윤회도에 그려진 각각의 원중 제일 위가 천상(天), 오른쪽 위가 아라한, 왼쪽 아래가 아귀 맨 아래쪽이 지옥이다. 티벳인들은 윤회도를 보면서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한다.

http://www.duke.edu/~bthafer/art.html



The Buddha of perfect compassion who has a variety of forms, but in Tibet, Japanese Buddhists, though not in Tibetan Buddhism may be found, and may have been known and a distinct name. Among the 'Buddha to the prayers of the world' since the Chinese and Japanese names (Kuan Yin) are used (but not in the 'Om mani padme hum' chant) the Tibetan name (Chenresong) is used to assist in any difficulty. At the arrival of Amida Buddha (the Buddha of the Western Paradise), he has a representation of Amida Buddha in his form, but, even when he has the features, he sometimes appears as an independent figure. F.T.T. Dharma Lotus in a Hossangyaya (Tibetan) of Avalokitesvara.

“일심으로 믿을때 미망 벗어나”

원효학연 '원효의 신앙' 학술회의

“원효스님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일심(一心)을 강조하고, 증생이 일심에 대한 믿음(信觀)에서 비롯된 수행을 할 때 비로소 미망(迷妄)과 집착(二執)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원효학연연구원(원장 김영태)이 원효스님의 저술에 나타난 신앙을 통해 현대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할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개최한 학술회의 '원효스님의 신앙'에서 제기됐다. 은정희교수(서울고대 윤리학과)는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기>에 나타난

요하다"며 "신심(信心)의 실천 수행을 통해 잘못된 집착(二執)을 버리고 미망에서 벗어나 날 때 일심을 알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보광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은 '원효의 정토관계 저술에 나타난 신앙'에서 "무량수경정토" <아미타경소> 등에 나타난 원효스님의 신앙은 불지(佛智)에 대해 의심없이 우러러 믿는 앙신(仰信) 그 자체"라며 "이것은 당시 오랜 전통으로 피폐화된 국토와 인심을 수습하기 위해 원효스님은 불교의 대중화를 주창했던 이유"라고 말했다.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은 '계·율·소를 통해 본 원효의 신앙'에서 "증생이 '무위(無爲)·자자(自恣)'한 보살계를 바탕으로 보살도를 닦을 때 일심(一心)을 일으켜 불도를 증득하는 것이 원효스님의 신앙"이라며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신앙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본업경소)를 통해 본 원효의 신앙'을 발표한 김영태교수(동국대 불교학)도 '(본업경) '집산품'에서는 귀불(歸佛)·귀법(歸法)·귀승(歸僧)·귀계(歸戒) 등을 실천하는 것이 증생의 신심(信心)을 고양시키고 선행(善行)을 닦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원효스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경지의 신심(信心)을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大乘-일심법 起信-확신감 의심없이 우러러 믿는 仰信

신관'에서 "(기신론)에서의 믿음이란 대승의 용은 이치를 알고 일으키는 일심(一心)이며, 이것은 신해(信解)·해신(信信)의 뜻"이라고 지적했다.

은교수에 따르면 (기신론)의 '대승(大乘)'이란 일심법(一心法)을 의미하며, '기신(起信)'이란 일심법으로 대승이 일으킨 믿음인 만큼 대승의 이해를 바탕으로 내면에서 생기는 확신감이라는 것이다.

은정희교수는 "증생들이 대승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일으키고 '깨달음의 씨앗'(佛種)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

종교마다 '죽음의 의미' 달라

불교 과보에 의한 존재의 변화
기독교 새로운 생명 얻는 관문

인간이면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죽음. 이 죽음을 각 종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가톨릭 신학과 사상>(가톨릭대출판부·가을호)에서는 '종교의 사생관'이라는 주제로 불교, 도교, 유교, 기독교 등 각 종교의 사생관을 특징으로 실어 눈길을 끈다.

이 특징에서 호진스님(동국대)은 불교의 무아·윤회에 입각한 업을 강조했다. 호진스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멸할 수밖에 없으며 인간도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며 "한 존재가 태어나고 죽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 자신이 지은 과보에 의해 이루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호진스님은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은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병든 육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비유를 들며 "인간 존재가 무아적이라는 입장에서 서 있는

불교에서는 생의 연속이란 모든 존재의 변화의 연속이지, 영혼과 같은 불변적인 존재가 이생에서 저 생,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다"고 정의한다.

차주환교수(단국대 동양학연구소장)는 "도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강해 불로장생하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았다"며 "질병·노쇠·사멸을 극복하고 불로장생하는 것이 도교의 사생관"이라고 말했다.

김충경씨(한국철학사상연구원 연구원)는 "유교에서의 죽음의 시간은 하루 일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 듯 늙고 병든 육신의 짐을 벗고 자리에 드는 휴식의 시간"이라고 정의한다.

조규만교수(가톨릭대 교신학)는 "예수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이란 새로운 생명으로 넘어가는 위한 관문이며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부활"이라며 소멸하는 죽음이 아닌 새생명 구원임을 강조했다. <육>

학술단신

20일 밀교학술회의

대한불교전각종이 초청 50 주년을 기념하는 밀교학술회의 '한국밀교의 수용과 전개'를 20일 위대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서운길교수(동국대 불교학)가 '한

국밀교의 특성과 법신사상' 송석규교수(한국밀교의 수용과 전개' 등 6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또 홍윤식교수(동국대 역사교육학), 정태희교수(동국대 명예교수) 등이 총평지나 나 선다.

'불교어문논집' 2집 발간

한국불교문화사연구회(회장 이종찬)는 최근 <불교어문논집> 2집을 펴냈다.

'승장과 문학'이 특징으로 실린 이번 호에는 '조선시대의 승장에 대하여'(김영태) '승장의 전승시 전생안락도 그 반상(反常)의 미학'(김갑기) '사명당실화의 발생 환경과 수용양상'(김승호) '반야심경의 독송을 변천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정우영) '실학과 불교의 교섭-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구사희) '은곡 원천석의 불교시 연구'(임종욱) 등의 논문이 실려있다.

“아시아 2천년대 문화 중심권”

美 헌팅턴 교수 신작 '문명의 충돌...'

민족간의 종교·문화적 갈등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새뮤얼 헌팅턴교수(美 하버드대)의 최근 신작 <문명의 충돌과 세계질서의 재편>이 주목받고 있다.

'근대화-서구화'란 인식의 틀을 깬 미래학자로 널리 알려진 헌팅턴교수는 "이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면서도 중요하고 또 위험한 갈등은 각기 다른 문화에 속한 민족간의 갈등이다"며 탈냉전 이후 세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갈등 요소로 민족·종교의 갈등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또 세계를 중국·일본·인도·이슬람·크리스트교-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의 7개 문명권으로 나눈 헌팅턴교수는 이슬람과 아시아가 인구와 경제력을 무기로 서구중심의 세계질서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것을 예견하고 있다.

“강택민 주석 美 방문 부당하다”

'티벳을 위한...' 로디 기야리 회장

"우리는 강택민 주석이 방문하는 어떤 곳에서도 시위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강주석의 반대 시위를 조직적으로 전개해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티벳을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Tibet)의 로디 기야리 회장이 <뉴스위크>(11월3일자)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로디씨는 "강주석이 티벳 독립을 지지하는 세계 여론을 가라 앉히기 위해 달라이 라마를 제외하고 린첸탄만을 만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국 인구가 60%가 소수민족이기에 우리 단체는 티벳 뿐만 아니라 많은 소수민족을 위해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벳을 위한 캠페인'에는 리처드 기어 등 할리우드 스타를 비롯해 대학생, 주부, 종교인 등 3만여명의 회원들이 티벳 독립을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웅 박정희

택시 안에서 바라본 37가지 이야기

스님! 꼭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박삼중 스님의 세상보기

택시 안의 인생의 축소판이다. 그 속에서 만난 택시 기사를 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들을 통해 나는 또 다른 인생을 배운 것이다.

어느 택시 기사와 흑인 손님 두 명을 태우고 워커힌로 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도중에 반대편에서 오는 동료 기사를 만났다. 길에서 마주치자, 저쪽에서 오던 택시 기사가 아는 체하며 소리쳤다. "어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자 이쪽의 택시 기사도 덩달아 반가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면서 콘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워커힌로 일단 두 장 싣고 가세!" 목적지에 다다랐다. 이 흑인 손님이 빙긋이 웃으며, "언단 두 장 싣기 일만요? 한 장에 1백5십 원이니..... 그러면 3백 원이면 되겠구만!" 하며 동전 세 개를 던진 뒤 문을 닫고 내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노 스피크 잉글리쉬, 중에서

진정한 한국인 김태형 자음

인간 박정희, 그도 낙조가 되어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 민족혼은 이 나라 민족사에 영웅으로 살아남아 또다시 동해 바다에 그 찬란한 태양으로 떠오를 것이다. 인간 박정희, 그가 걸어온 한평생은 영욕의 부침으로 가득했다. 그가 가난의 때가 넘쳐 흐르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뜻한 바 군인의 길로 걸기까지는 전형적인 조선사람일 뿐이었다.

■신국판/값 6,500원

인화 615-1915

산미디어 615-1914, 682-1854

■신국판/값 6,500원